

# 사람 못지 않은 인공지능... 급정거까지 “와우”

“지금부터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사업단) 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차량 실증실. 바퀴 없는 차량 주변 360도로 설치된 모니터 8개가 일제히 불을 밝히자 차량에 저절로 시동이 걸렸다.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자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는 간결한 안내 음성과 함께 차량 너머 모니터를 통해 야간 시간대 인 천시 감단구 주변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이 펼쳐졌다.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과 가로등, 틀게이트 주변 설비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재현된 가상현실 속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주행음을 내더니 이내 운전자 없이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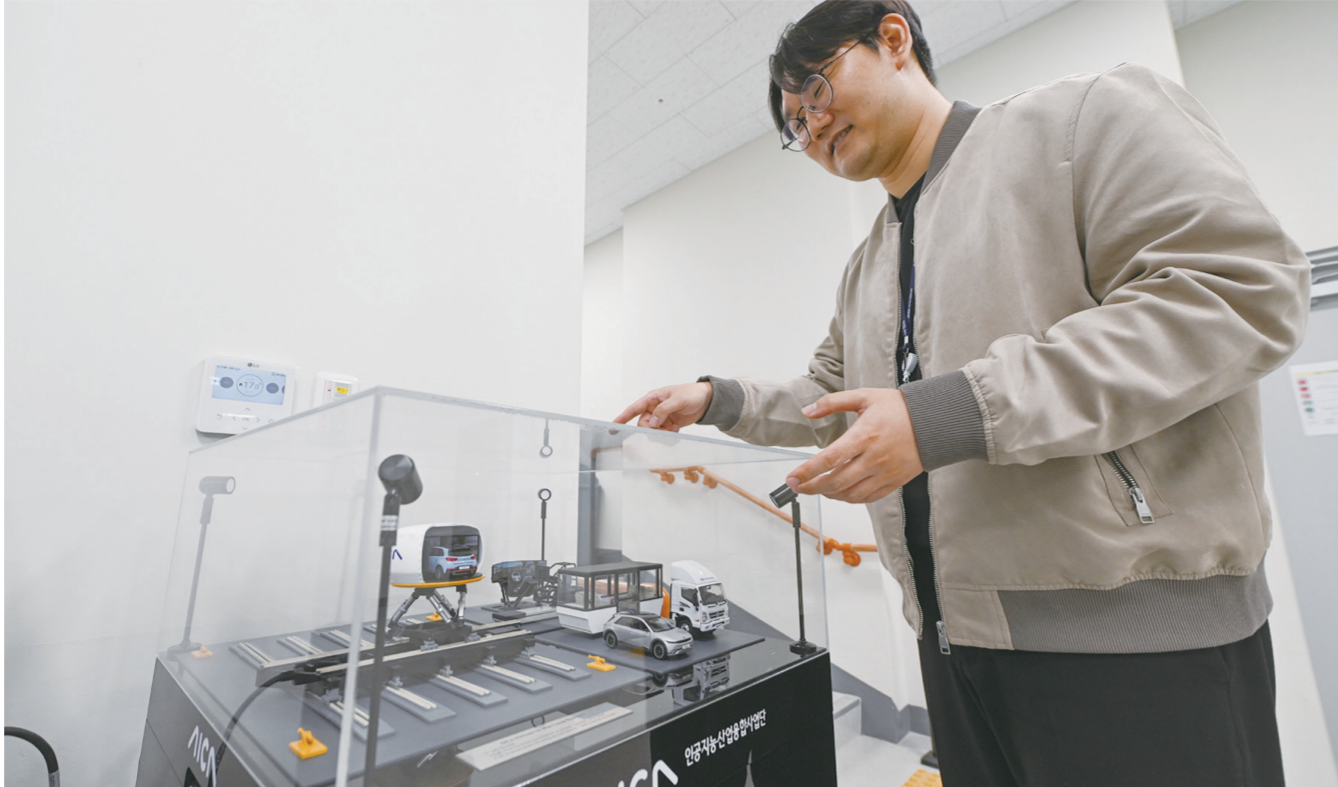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량은 깜빡한 램프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뒤 틀게이트를 넘어 비가 내리는 편도 3차선 고속도로 구간으로 진입했다. 빗줄기와 물웅덩이를 감지한 차량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가상현실 속 사고 상황에 대비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예방 능력은 급정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주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자율주행 차량도 실제 차량처럼 크게 ‘기우뚱’하며 충돌을 피했다.

이러진 1차로 차량 정제 구간에서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감지한 자율주행 차량은 이번에도 급정거하며 사고를 피했다.

고속도로 진입과 급정거, 악천후 상황 등을 재현한 가상현실 속 3분여간의 자율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AI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업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AI의 자율주행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장비인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드라이버



이진호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차석이 13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자율주행 차량 실증실에서 '드라이버 인 더 루프 시스템(Driver In The Loop System·DILs)'을 설명하고 있다.

## 광주 AI산업융합사업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 자율주행 차량이 가상 환경 속 운전·돌발상황 대처

인 더 루프 시스템(Driver In The Loop System·DILs)을 운용 중이다.

DILs는 가상현실 화면을 통해 AI가 운전하는 차량의 주행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가상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AI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 목표다.

360도 돔 구조의 시뮬레이터 내부 8방향 화면을 비롯해 시뮬레이터를 움직이는 6축 유압 실린더, 가로 7m·세로 20m 레일

등 물리적 장치를 결합해 실제 주행감과 운전 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차량의 출발과 정차, 급정거 등 가상현실 속 모든 상황에 대해 복합 중력가속도 0.9G 수준의 물리적 조작감을 구현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대응 능력을 실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심전도 등 생체 데이터를 측정해 AI 개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단은 향후 민간 기업이 개발한 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국정 과제로 채택된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에 이어 후속으로 '산단 구내식당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노후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산단 근로자 친화 구내식당 리뉴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시작해 큰 호응을 얻었던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의 후속 복지 정책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촌, 송암, 소촌, 하남, 평동1·2차, 첨단 산업단지 등 착공 후 20년

## 광주시,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이어 구내식당 개선 본촌·하남 등 6개 산단 구내식당 운영 기업... 31일부터 접수

인테리어·가전주방기기 교체 등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6곳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구내식당 인테리어 새 단장은 물론 노후 가전과 주방기기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기업당 총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25% 이상은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를 거쳐 총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5월부터 구내식당 새 단장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전남도,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등록 건당 최대 53만 원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소상공인 IP(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보유한 상호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당 최대 53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약 200건의 상표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사 상표 사용으로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jnt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이나 상담은 전화(061-242-859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신종필 기자



“상표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브랜드를 선점하고 보호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이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섬지역 어르신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고흥·완도·진도·신안 섬 65세 이상 100여명 AI 기반 돌봄 제공 돌봄 로봇·비대면 심리상담·케어푸드...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6개 시·도 선정된 가운데 전남도는 국비 1억 2천600만 원을 확보해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이 배정받았다. 이는 공모 신청 기준액인 6천 300만 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돌봄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제공기관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응급의료 취약지, 인구 감소,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4개 군의 섬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가정 내 일상돌봄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형 돌봄 모델이다. 주요 서비스는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돌봄 ▲비대면 심리상담 ▲케어푸드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에 설치된 AI 돌봄로봇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말벗이 되고 복약 알림과 안부 확인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화 내용, 활동량 변화 등 데이터

를 분석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고 필요시 전문가와 비대면 심리상담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고립되기 쉬운 섬지역 어르신의 일상에 작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케어푸드 제공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협력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고령자 맞춤형 키트로 제공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섬관리자'로 지정해 돌봄서비스 안내와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사업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현장에서 어르신의 큰 호응을 얻으며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섬 주민을 위해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해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